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칠레인에게 평화란 무엇이었는가?

조성훈

18세기 말까지도 남미 남부(Cono Sur) 지역은 이베리아 문명의 지배권 밖에 있었다. 스페인도 이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마푸체인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19세기 말에 칠레가 이 못다 한 정복을 마무리했다. 총칼로 무장한 칠레인은 마푸체인이 지금까지 자주권을 누리던 공간을 모조리 빼앗았다. 마푸체인의 땅에 도시를 세우고, 토지와 재산을 빼앗았다.

칠레인은 이 일을 두고 아라우카니아 지역 평정(Pacificación de la Araucanía)이라고 부른다. 이 지역을 평화롭게 만들었다는 뜻인데, 마푸체인과 칠레 정부의 다툼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마푸체인은 칠레 정부에게 빼앗아간 유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칠레 정부는 탄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칠레인이 말한 평화(pacificación)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평화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보통 두개의 의미 중 하나로 이해한다. 첫 번째 의미는 갈등의 부재 상태다. 두 번째 의미는 갈등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해, 평화는 곧 정의다.

그렇다면 정복 전쟁을 벌이고 마푸체 영토를 빼앗아 식민지로 만든 칠레인이 말한 평화란 무엇이었을까? 그 평화 속에는 앞에서 말한 두 평

화가 칠레인 중심으로 변형되어 있다. 하나는 마푸체인이 칠레인에게 반항하지 않는 상태다. 다른 하나는 칠레인이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마푸체인의 영토를 침탈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평화는 곧 순풍에 돛을 단 식민주의다.

증명할 방법도 있다. 20세기 초에 마푸체 연구로 이름을 날리던 칠레인 학자 토마스 게바라(Tomás Guevarra)가 여러 마푸체 원주민의 도움을 얻어 1913년에 펴낸 책 『마지막 아라우코 가족과 문화』(Las últimas familias y costumbres araucanas)를 마푸체어와 스페인어 양 쪽으로 읽으면 된다. 게바라는 스페인인이 ‘아라우코 족’이라고 이름을 잘못 붙인 마푸체인의 여러 생존자 및 후손의 가족사 이야기를 수집하여 이 책의 1부에 실었다. 책을 좌우 두 칸으로 나누고 오른쪽에는 마푸체어로, 왼쪽에는 스페인어로 내용을 기록해서 언어학자에게나 민속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이 책에서 마푸체어를 어떻게 스페인어로 옮겼는지 살펴보면 칠레인이 무엇을 평화로 여겼는지 알 수 있다.

게바라는 마푸체어와 스페인어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비슷할 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바라는 이를 “자유롭게 번역했다”고 표현했다(Guevara 1913, 5).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자유로운 번역이란 오늘날 번역가의 눈으로 보자면 상당수가 왜곡에 가까운 것이다. 아예 일부러 내용을 뜯어 고친 것이 확실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이를테면 칠레 정부에 협력한 마푸체 집안 콜리피(Colipi)에 대한 기술에서 마푸체어는 “콜리피 집안의 행위는 이제 많이 기억되지 않는다”(Tufaula meu, tufachi mapu meu, Kolipi ta pu Pinolevi newe kimngelaingun)고 한 것을 스페인어 부분에서는 “콜리피 집안의 행위는 온 아라우카니아(마푸체의 옛 영토)에서 기억된다”(Sin embargo, en toda la Araucania se recuerdan los hechos de los Kolipi i Pinolevi)로 고쳐 놓았다(Guevara 1913, 26).

하지만 게바라는 몰랐을 것이다. 게바라는 그것이 자유로운 번역인지 오역인지 왜곡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마푸체어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Pavez 2003, 11). 책의 번역을 맡은 사람은 마누엘 만킬레프(Manuel Manquilef)를 비롯하여 서양식 교육을 받은 마푸체인들이었다.

1898년 마푸체 여성들 (출처: <http://chileprecolombino.cl>)

따라서 그 자유로운 번역이라는 말은 마푸체어를 스페인어로 옮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게바라에게 한 변명 내지는 거짓말이었다.

번역자들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으므로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다. 하지만 나는 책의 번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마푸체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 양쪽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려 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칠레인이 마푸체어를 배우려 하지 않은 이상 이런 속임수가 발각될 염려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마푸체어를 진지하게 배운 극소수 칠레인도 이런 사소한 속임수는 넘어가 준 것 같다.

또 다른 이유로 스페인어 부분의 내용이 당시 칠레 사회의 입맛에 맞아야 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칠레식으로 교육받은 마푸체인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칠레인이 생각한 평화가 무엇이었는지를 『마지막 아라우코 가족과 문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배려 덕분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들여다보도록 하자. 방법은 간단하다. 스페인어 부분에 평화나 평화와 관련된 낱말로 번역된 부분을 읽고 그 부분을 마푸체어 부분의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마푸체어에서 ‘평화’ 또는 평화로 번역할 만한 말은 텡(tüng)과 크메렌(kümelen)이다. 옛 마푸체 영역에서 활동하던 펠릭스 호세 데 아우구스타(Félix José de Augusta) 수도사가 1916년에 펴낸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Augusta 1916, 188). ‘텡’은 ‘평온함’ 정도의 뜻이고, ‘크메렌’은 ‘좋은 상태다. 잘 있다’ 같은 뜻이다. 하지만 1913년에 나온 『마지막 아라우코 가족과 문화』에서 이 두 말이 ‘평화’로 번역되는 일은 없었다. 그럼 스페인어 번역에서 ‘평화’(paz)라는 말이 나온 경우를 하나하나 짚으며 이를 확인해 보자.

- Ka ngulamkefingun kom pu lonko tañi **kewanoael** kofiernu engu.
- Aconsejaban a los caciques rebeldes que aceparan **la paz** (Las últimas familias, p. 47).

스페인어 부분을 한국어로 옮기면 “카시케(부족 지도자들)에게 평화(paz)를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마푸체어 부분을 옮기면 “모든 룡코(마푸체 지도자)들에게 정부와 싸우지 말라고 충고했다”로 뜻이 달라진다. 이 때 정부(kofiernu)란 칠레 정부를 뜻한다. 참고로 케완(kewan)은 ‘싸우다’를 뜻하고 ‘kewanon’은 ‘싸우지 않다’라는 뜻이다. ‘싸우지 않다’를 ‘평화’로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경우를 보자.

- Pu wenteche ta **doi kewalaingun** welu kiñeke rupa nielu engun ta dungun, nükefuingun ta waiki ñi aukayael.
- Los arribanos **se pacificaron**, pero cada vez que tenían oportunidad, algunos grupos tomaban las armas (Las últimas familias, p. 58).

이곳의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옮기면 “아리바노(마푸체 중 한 집단으로 칠레 정부를 가장 적대시한 집단이었다. 마푸체어로는 ‘웬테체’라 한다)들은 평정되었다.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몇몇 집단은 무기를 들었다”이다.



아라우카니아 정복 당시 칠레의 군대 (출처: <https://es.wikipedia.org>)

마푸체어 부분은 “웬테체들은 더 싸우지 않았다. 하지만 몇 번인가 일이 있을 때는 창을 들고 싸웠다”이다. 여기서도 ‘싸우지 않다’를 ‘평정되다’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누구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말일까? 칠레 정부군과 칠레인 민병대다. 참고로 여기서 ‘더 싸우지 않다’는 doi kewalaingun이다. 앞에서 말했듯 어근 ‘kewa-’는 ‘싸움’을 뜻하며 뒤따르는 ‘-la’는 한국어의 ‘-지 않다.’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리고 도이(doi)는 한국어의 ‘더’와 유사한 뜻이다. 이 두 경우만이 아니다. 계속해 보자.

- Fentren che amui: lafkenche, lelfunche ka künu piren che. Fei meu mai doi **kewawelayain** pingeun ka konai pu winka i ulael wesakelu pingeun.
- Concurrieron los costinos los abajinos i algunos caciques del este. Ahí se convino en **vivir en paz** i permitir el comercio a los chilenos (Las últimas familias, p. 37).

스페인어 부분을 해석하면 “코스티노(바닷가 마푸체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마푸체 말로는 랍켄체이다)들, 아바히노(마푸체 집단 중 하나로 칠레

정부에 가장 순종적이었으나 19세기 중반부터 칠레인의 마푸체 영토 침탈이 거세지면서 이 집단 역시 무기를 들고 일어났다. 마푸체어로는 렐펀체라고 한다)들, 동쪽의 부족장들(안데스 산맥 동쪽의 마푸체인을 일컫는다)들 몇몇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면서 칠레인이 장사할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된다. 하지만 마푸체어 부분은 이번에도 다르다. 그 내용은 “수많은 마푸체인이 모였다. 랍켄체, 렐펀체, 피렌체. 그리고 더 싸우지 말자고, 칠레인이 상품을 가져오게 하자고 말했다”이다. 어김없이 마푸체어의 ‘더 싸우지 않는다’가 스페인어로는 ‘평화롭게 살다’(vivir en paz)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경우만 더 보자.

- Kūmeke dungu entuingun ta mūr. Zúñiga ta niefui kūme ngulam. Mūr ta rofūlingun, fei lligllan ta kofiernu ñi dungu me koni.
- Tuvieron bonitas palabras. Zúñiga tenia buen consejo. Los dos se abrazaron i Lligllan se pasó a los patriotas.
- Mollingun ta che ka fentrentu ilolingun ta kullin ka kiñe weke tañi feleam ñi **doy kewanoal** ta che.
- Hubo en esta reunión borrachera i se comieron los principales, en señal de **paz**, un weke, animal antiguo de los mapuches (Las últimas familias, p. 171).

스페인어 부분은 “좋은 말들을 나눴다. 수니가가 좋은 충고를 했고, 두 사람은 얼싸안았다. 리그얀은 독립과 편으로 넘어왔다. 이 모임에서 취할 때까지 마시고 지도자들은 평화의 표시로 마푸체 전통 가축인 웨케 고기를 먹었다”이다. 수니가는 칠레 정부를 위해 일하는 통역관이었고, 이 모임에서 리그얀(Ligllan)은 칠레 정부를 거부하고 스페인 편을 드는 마푸체 지도자로 앞에서 말한 콜리피 집안과 싸우고 있었다. 이 사람이 수니가의 설득으로 스페인 지지를 그만 두고 칠레 정부 편으로 돌아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마푸체어 부분의 내용도 거의 같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푸체어의 ‘더 싸우지 않기’(doy kewanoal)가 스페인어의 평화로 번역되었다. 한결같은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싸우지 않는다’나 ‘평화’나 같은 뜻이



1869년 마푸체인과 협상하는 코넬리오 사베드라 로드리게스 (출처: <https://es.wikipedia.org>)

아니냐? 뭐가 문제냐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페인어 부분만 읽는 사람은 이게 문제라는 것을 눈치 채기가 힘들 것이다. 문제는 마땅히 평화로 번역되어야 할 말이 평화로 번역되지 않을 때이다. 다음 경우를 보자.

- **Küme ngetuinun** kupalu ta Penchulef, Pitrufken che; Kilapan ka Kilaweke pu wenteche tañi doi **kewanoael** ta doi newenngeal, ñi itro ruf newentuael kizu taiñ mapu meu.
- **Se pusieron bien** después con la venida de Penchulef, de Pitrufquen; Kilapan i Kilaweke, arribanos, quienes hicieron ver a los dos bandos la necesidad de **no pelear**
- Alonsa naipikunuei ka kom che **kewanoel** tufachi mapu meu.
- La Alonsa quedó en libertad i todos prometieron **no pelear más**. (Las últimas familias, p. 89).

스페인어 부분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피트루펜의 펜츨레프가 온 뒤에 화해했다. 아리바노인 킬라판과 킬라웨케가 두 집단이 서로 싸우지



마푸체인의 저항 (출처: <https://namu.moc/w/%EB%A7%88%ED%91%B8%EC%B2%B4>)

않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했기 때문이다. 알론사도 풀려났고 이 땅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 않았다”이다. 피트루켄은 마푸체 영토의 지명이고 펜출레프는 마푸체 인명이다. 킬라판과 킬라웨케는 아리바노 부족의 지도자들로 여러 마푸체 집단 사이의 평화를 추구했다. 마푸체인을 통합하여 칠레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알론사는 마푸체 집단 사이 싸움에서 포로로 잡혀 있던 여자이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인다. 마푸체어 부분에서 앞의 다른 사례들에서처럼 ‘싸우지 않는다’(kewanoel)라는 말을 썼는데 스페인어 부분에서는 앞에서와 다르게 ‘평화’도 ‘평화롭게 되다’(pacificarse)도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아우구스타의 사전에 따르면 ‘평화롭게 되었다’로 번역해야 할 ‘Küme ngetuinun’(좋은 상대로 돌아가다)는 ‘화해했다’(se pusieron bien)로 옮겼다. 다른 사례에서는 평화로 번역하던 표현을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다른 경우에는 마푸체인이 칠레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방금 분석한 경우는 마푸체인이 서로 싸움을 멈추고 잘 지내는 것이다. 전자는 칠레인의 마푸체 땅 식민화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 후자는 방해만 되는 상황이다.



현재도 지속되는 마푸체인의 저항 (출처: <https://www.itinerantour.com>)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마푸체어 부분을 스페인어로 번역한 마푸체 번역가들이 스페인어의 ‘평화’를 그런 뜻으로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책의 구성을 감독한 토마스 게바라가 생각한 평화 개념도 “마푸체가 자기 땅의 반항하지 않는 것”을 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게바라는 마푸체어는 잘 몰랐지만 스페인어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쓴 말이었다. 스페인어 부분은 식민세력의 감시에서 덜 자유롭다.

마푸체 전문가로 이름 높은 칠레 역사가 호세 벵고아(José Bengoa)는 마푸체인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를 “평화는 마푸체인의 가족과 재산이 약탈당하는 것을 뜻할 뿐이었다”고 썼다(Bengoa 2008, 272). 이러니 스페인어의 평화(paz)는 마푸체어의 평온함(Tüng)도 잘 지냄(kümelen)도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칠레인이 마푸체인에게 요구한 평화란 “저항하지 말고 앉아서 당하라”였다.

지금도 칠레 사회와 정부는 저항하는 마푸체 공동체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마푸체인의 옛 땅인 아라우카니아 지역의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중무장한

경찰 병력이 꾸준히 배치되고 있는 것은 칠레 사회 다수가 생각하는 평화와 마푸체인이 바라는 평화가 사실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Antinao Varas, Clorinda, *Diccionario Ta iñ Mapun Dungun Nuestra Lengua Mapuche*, Santiago de Chile, Pu Lifru Mapunche Kimün ngelu, 2014.
- Augusta, Feliz José, *Diccionario Araucano Mapuche-Español Español-Mapuche*, Ediciones Cerro Manquehue, 1996.
- Augusta Feliz, José, *Diccionario Araucano-Español y Español-Araucano*, tomo segundo, Barcelona, 1916, (incluido en la edición de 1996).
- Bengoa José, *Historia del Pueblo Mapuche Siglos XX i XIX*, Santiago de Chile, Lom ediciones, 2008.
- Coña, Pascual, *Testimonio de un cacique mapuche*, Santiago de Chile, Pehuen, 2010.
- Guevara, Tomas, *Las últimas familias i costumbres araucanas*, Santiago de Chile, Imprenta, Litografía i Encuadernación Barcelona, 1913.
- Menard, André, “Emergencia de la tercera columna en el texto: «La faz social» fragmento de los Comentarios del pueblo araucano de Manuel Manquilef. Presentación y comentario”, en *Anales de Desclasificación* Vol. 1: La derrota del área cultural n°2, 2006. <<http://repositorio.uchile.cl/handle/2250/121824>>
- Pavez, Jorge, “Mapuche ñi nüttram chilktun Escribir la historia mapuche: Estudio posliminar de Trokinche Müfu ñi piel. Historia de Familias. Siglo XIX”, *Revista de Historia Indígena* N°7, Departamento de Ciencias Históricas, Universidad de Chile, 2003. <<http://www.revistahistoriaindigena.uchile.cl/index.php/RHI/issue/view/4187>>.
- Fernando Pairican, Malon. *La rebelión del movimiento mapuche 1990-2013*, Santiago de Chile, Pehuen, 2014.
- Pinto Rodríguez, Jorge, *La formación del estado y la nación, y el pueblo mapuche: de la inclusión a la exclusión*, Segunda Edición, Santiago de Chile, DIBAM, 2003.